Deep Learning 기초 3 (딥러닝 학습의 효율과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들 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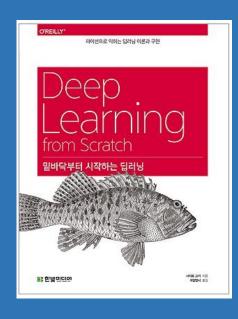
임세진

https://youtu.be/meOdnvGsqj0





Contents





01. 매개변수 갱신 (Optimizer)

02. 가중치의 초깃값

- Optimization (최적화)
 - : 손실 함수의 값을 최대한 낮추는 매개변수를 찾는 것

- 매개변수의 최적값을 찾는 법 (기준으로 삼는 단서에 따라 분류)
 - ✓ 확률적 경사 하강법 (SGD)
 - ✓ 모멘텀
 - ✓ AdaGrad
 - ✓ Adam

- 확률적 경사 하강법 (SGD)
 - : 매개변수의 기울기(미분) → 기울어진 방향으로 매개변수 값 갱신

<모험가 이야기>

- ✓ 깊은 골짜기를 찾는 것이 목적
- ✓ 지도를 보지 않고, 눈가리개를 써서 찾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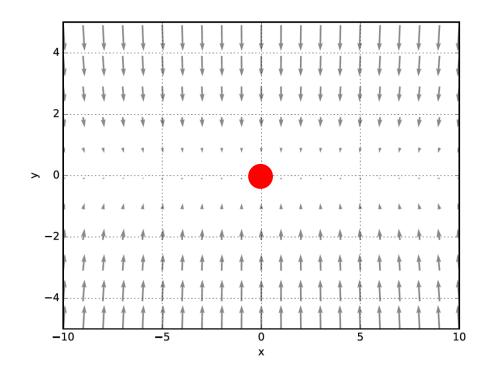
현재 서있는 곳에서 가장 크게 기울어진 방향으로 가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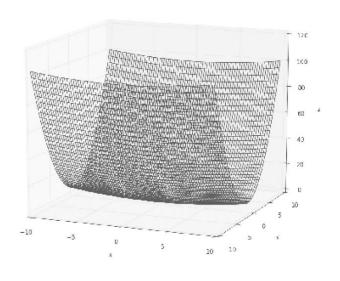
[이타] 학습률 (보통 0.01, 0.001 사용)

$$\mathbf{W} \leftarrow \mathbf{W} - \eta \frac{\partial L}{\partial \mathbf{W}}$$
갱신할 가중치 매개변수 W에 대한 손실 함수의 기울기

• SGD의 단점

함수예:
$$f(x,y) = \frac{1}{20}x^2 + y^2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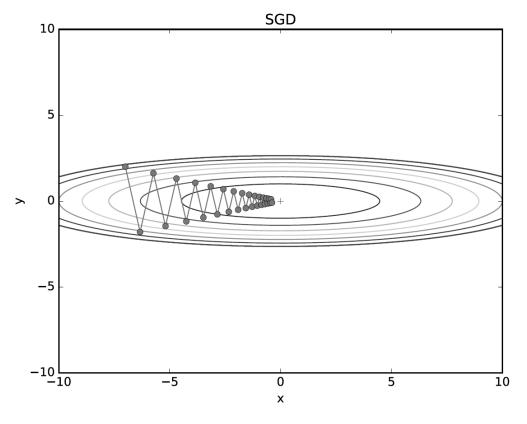




최솟값은 (0, 0) 인데 그림의 기울기는 대부분 (0, 0) 방향을 가리키지 않음

• SGD의 단점: 비등방성(anisotropy) 함수에서 탐색 경로가 비효율적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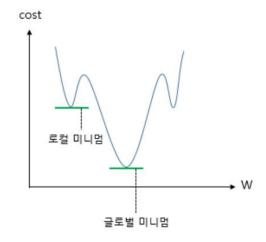
── 방향에 따라 성질(기울기)이 달라지는 함수



심하게 굽이진 움직임을 보여줌 (기울어진 방향이 본래의 최솟값과 다른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) → 상당히 비효율적임

앞의 함수에 SGD를 적용한 결과

- 모멘텀 (Momentum)
- '운동량'을 뜻하는 단어로 물리와 관련 있음
- 기울기 값만 반영하는 SGD 개선 (기존의 SGD에 관성을 더해줌 → 수렴속도 개선)
- 관성의 법칙 이용 (이전 물체의 속도는 현재 물체의 속도와 관련 있음)



지면 마찰, 공기 저항의 역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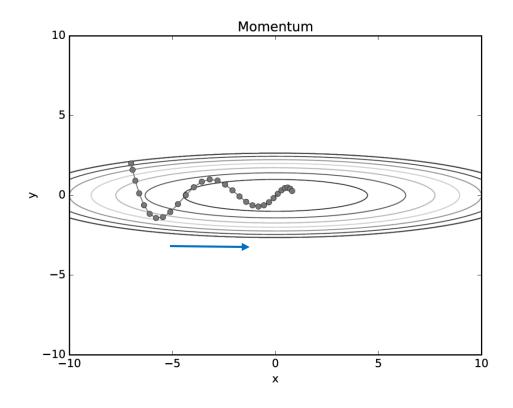
$$\mathbf{v} \leftarrow \alpha \mathbf{v} - \eta \frac{\partial L}{\partial \mathbf{W}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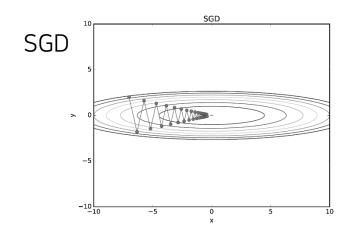
$$\mathbf{W} \leftarrow \mathbf{W} + \mathbf{v}$$

$$\stackrel{\text{\Leftrightarrow_{\Xi}$}}{}$$

기울기 방향으로 힘을 받아 물체가 가속되는 물리법칙 표현 (속도가 클수록 기울기가 크게 update 됨)

• 모멘텀 (Momentum)





- ✓ 속도는 방향성을 포함
- ✓ X축의 힘은 아주 작지만 방향이 바뀌지 않아서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가속
 - → SGD보다 X축 방향으로 빠르게 다가갈 수 있음
- ✓ Y축의 힘은 크지만 방향이 계속 바뀌어서 상충하므로 속도가 일정하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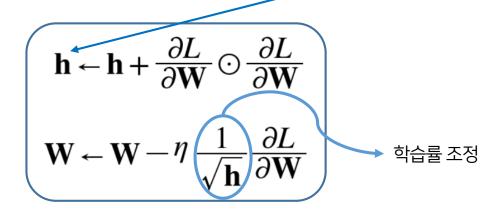
- 신경망 학습에서 학습률 값은 ★ 중요★
- 학습률을 정하는 효과적 기술

학습률 감소 (learning rate decay) : 학습을 진행하면서 학습률을 점차 줄여가는 방법

기울기의 값을 제곱하여 계속 더해줌

- Adagrad
- 각각의 매개변수에 맞춤형 값 개별 매개변수에 적응적으로 학습률을 조정하며 학습 진행
- 과거의 기울기를 제곱하여 계속 더해감
 - → 학습을 진행할수록 갱신 강도 약해지는 단점
 - → RMSProp 으로 개선

──> 먼 기울기는 서서히 잊고 새로운 기울기 정보는 크게 반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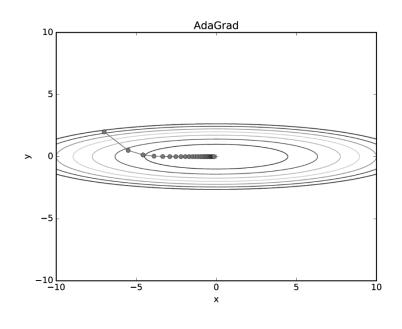
이 값이 너무 작으면 학습시간이 길어짐

너무 크면 발산하여 학습이 제대로 X

매개변수의 원소 중 많이 움직인(갱신된) 원소는 학습률이 낮아짐

→ 학습률 감소가 매개변수의 원소마다 다르게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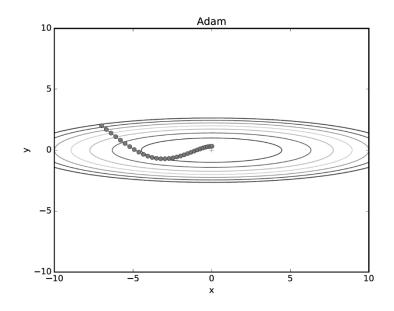
Adagra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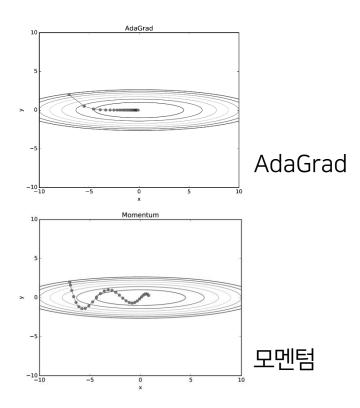


- ✓ 최솟값을 향해 효율적으로 움직임
- ✓ Y축 방향은 기울기가 커서 처음에는 크게 움직이지만 Y축 방향으로 갱신 강도가 빠르게 약해짐

Ada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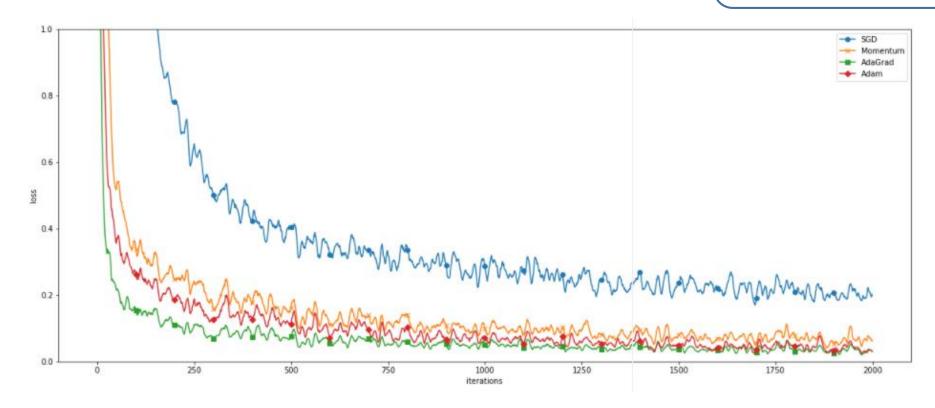
- 모멘텀 + AdaGrad
- 학습률을 줄여나가고 속도를 계산하여 학습의 갱신 강도를 적응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방법
- 하이퍼파라미터의 '편향 보정'이 진행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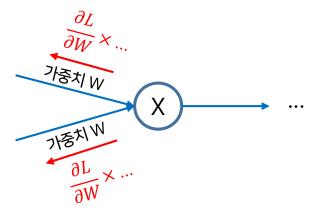


- 4가지 Optimizer 비교 (MNIST 데이터셋에 대한 학습 진도 비교)
- 모든 문제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기법은 없음
- Adam을 많이 사용함

- ✓ SGD의 학습 진도가 가장 느림
- ✓ AdaGrad가 빠른편
- ✓ 하이퍼파라미터 (학습률, 신경망의 구조) 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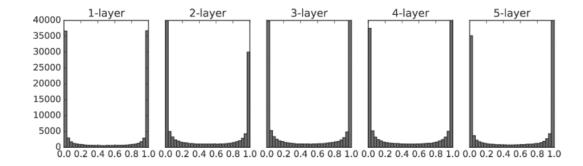
- ★ 가중치의 초깃값 ★ 도 신경망 학습에서 중요
- 초깃값을 0(균일한 값)으로 하면?
 - ▶ 학습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음
 - ▶ 오차역전파법에 의해 모든 가중치의 값이 똑같이 갱신되기 때문 (같은 초깃값에서 시작하고 갱신을 거쳐도 여전히 같은 값)
 - ▶ 가중치를 여러 개 갖는 의미가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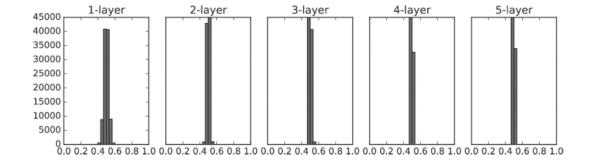


- 가중치의 대칭적인 구조를 무너뜨리려면 초깃값을 무작위로 설정해야 함

- 표준편차에 따른 활성화 값의 분포 비교
 - → 분포된 정도

- ✓ 층이 5개 있고, 각 층마다 뉴런이 100개씩 있음
- ✓ 활성화 함수로 시그모이드 함수 사용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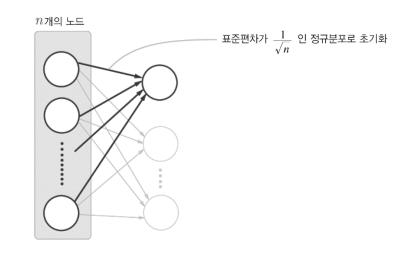
가중치를 표준편차가 1인 정규분포로 초기화할 때 활성화값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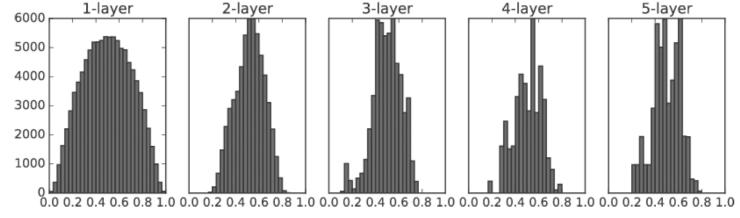
- ➤ Sigmoid 함수의 출력값이 0과 1에 치우침
- 역전파의 기울기 값이 점점 작아지다 사라짐
- ▶ 기울기 소실 문제 발생

가중치를 표준편차가 0.01인 정규분포로 초기화할 때 활성화값 분포

- ▶ 0.5 중심으로 값이 몰림
- 활성화 값이 치우침 → 다수의 뉴런을 둔 의미 X (표현력 제한 문제)
- ✓ 각 층의 활성화 값은 적당히 고루 분포되어야함
- ✓ 층과 층 사이에 다양한 데이터가 흘러야 신경망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

- Xavier 초깃값
- 각 층의 활성화값들을 광범위하게 분포시키는, 가중치의 적절한 분포 찾기 목적
 - \rightarrow 앞 계층의 노드가 n개라면 표준편차가 $\frac{1}{\sqrt{n}}$ 인 분포 사용
- 앞 층에 노드가 많을수록 대상 노드의 초깃값으로 설정하는 가중치가 좁게 퍼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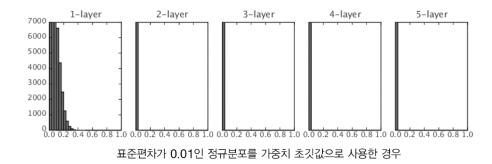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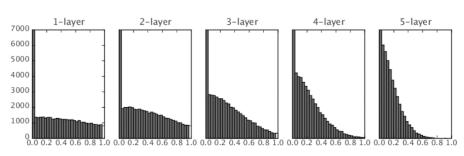


Xavier 초깃값을 사용했을 때

- ▶ 값들이 넓게 분포하며 Sigmoid 함수의 표현력도 제한 X
- ▶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음
- ▶ 일그러짐은 tanh 함수로 개선 가능

- He 초깃값
- ReLU에 특화된 초깃값
 - → 앞 계층의 노드가 n개라면 표준편차가 $\sqrt{\frac{2}{n}}$ 인 정규분포 사용
 - → ReLU는 음의 영역이 0이므로 더 넓게 분포시키기 위함으로 볼 수 있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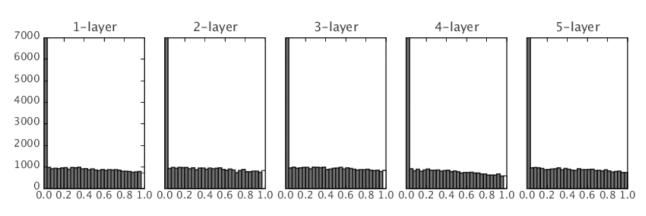


Xavier 초깃값을 사용한 경우

모든 층에서 균일하게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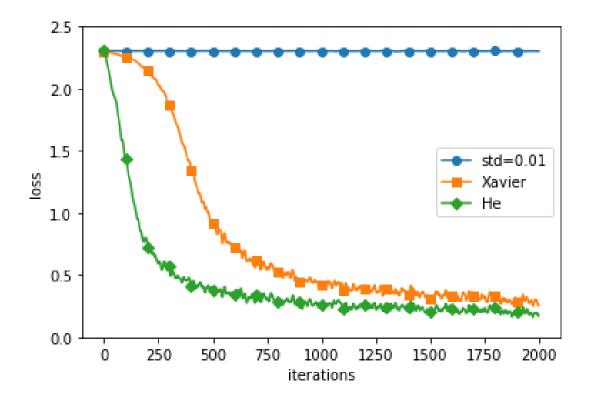
ReLU: He 초깃값

Sigmoid, tanh 등의 S자 모양 곡선 : Xavier 초깃값



He 초깃값을 사용한 경우

- MNIST 데이터셋으로 본 가중치 초깃값 비교
 - → 가중치의 초깃값은 신경망 학습에 아주 중요



감사합니다